

# 홀트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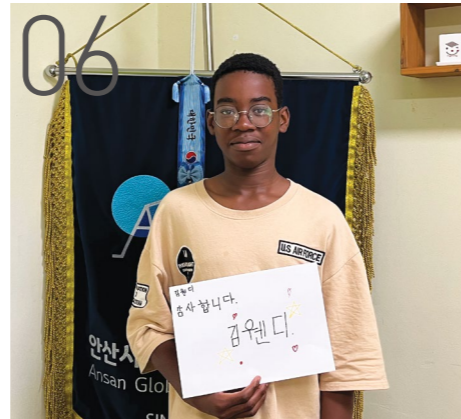
AUTUMN 2023 VOL.210





## 가을 이야기

한부모들의 풍성한 축제의 장 'MOM'S FESTA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관련기사 12쪽)



## Contents

### 아동·청소년복지

- 04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했던 '꿈동이 여름 축제'
- 06 체육 꿈나무 웬디, 꿈을 향한 모험의 시작
- 08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체육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 10 우리를 위한 발걸음을 응원하는 'With You!'

### 한부모가족복지

- 12 엄마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MOM'S FESTA 플리마켓
- 16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家) 가족"

### 장애인복지

- 18 멈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휠체어농구는 희망입니다

### 국제개발협력

- 20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 나눔스토리

- 22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 24 사랑을 행동으로의 '찐' 모범 사례 탐리더스 권익도·김현주 부부 위원
- 26 물질적으로 가장 궁핍할 때 나눔을 결심합니다
- 28 이름을 새기는 일이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일이 되도록
- 30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 담아 나눔을 실천해요

- 32 HOLT NEWS

##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 사** 장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글로버 053)654-0181  
 대전글로버 042)583-4006  
 광주글로버 062)361-5900

### 국제개발협력

홀트 사업장 02)331-7052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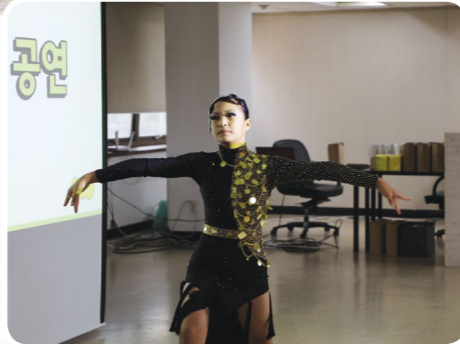
통권 | 210호·계간 발행일 | 2023년 10월 25일 발행인 | 김정오 편집인 | 신미숙  
 발행처 |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했던 '꿈동이 여름 축제'

## 아동 교육비 지원 '꿈과희망지원사업' 여름 행사 후기

2023년 7월 27일 학생들의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꿈동이(꿈과희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부르는 애칭) 여름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여름 캠프로 매년 함께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랫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요즘, 비록 캠프는 아니지만 그 아쉬움을 당일 대면 행사로 달랬습니다.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했던 꿈동이 여름 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 오랜만의 만남에 설레는 우리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꿈동이 여름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꿈동이들과 소속 기관의 담당자들 그리고 행사 후원사 '스타트업 디엔코리아'와 '탐리더스(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의 위원님들까지 모두 100여 명이 모여 '꿈동이 여름 축제'를 즐겼습니다.

졸업생 강연, 꿈동이 축하공연, 경품 추첨 및 간식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잊지 못할 한여름 낮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졸업생 꿈동이와 현직 꿈동이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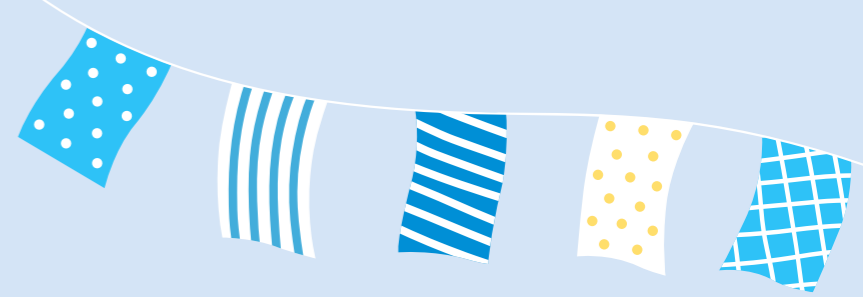
이번 행사의 특별한 점은 '전직 꿈동이'와 '현직 꿈동이'의 만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으로 교육비 지원은 끝났지만, 졸업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 두 명을 초청하여 '꿈과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성환(20세/국어교육과 재학, '방향하는 청춘들에게'), 최동기(20세/간호학과 재학, '나의 꿈을 향해') 두 친구 모두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공부 방법, 슬럼프 극복사례, 꿈을 정하게 된 계기, 꿈동이 지원의 긍정적인 영향 등을 이야기하며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을 이뤄가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현재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꿈동이의 댄스스포츠 축하공연도 있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경쾌한 리듬으로 댄스스포츠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탐리더스 김찬규·김기범·최용우·최은옥 위원이 참여하여 꿈동이들을 응원해 주었고, 탐리더스 김윤정 회장·서영자 위원이 선물을 후원하여 더욱 멋진 행사가 되었습니다.



## 새로운 사람, 친해진 우리

행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꿈동이를 위해 맛있는 간식과 푸짐한 경품을 준비해 주신 '스타트업 디엔코리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탐리더스' 위원님들입니다.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까지 풍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스타트업 디엔코리아 임직원과 탐리더스 위원님들은 간식도 나눠주시고, 경품 추첨에 참여하며 꿈동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부 순서로 강도현 MC와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속 기관 담당자들도 놀랄 만큼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해준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꿈동이 친구들을 직접 보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캠프여서 뜻깊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다음을 기약하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나 꿈동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았던 만큼 내년에는 올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까지 모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09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과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체육 꿈나무 웬디, 꿈을 향한 모험의 시작

‘향기나는 결연, 허브’로 인연을 맺은  
결연아동 웬디 이야기

감사합니다.

김웬디



지난 7월 12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을 보셨나요? 이날 방송에는 홀트아동복지회 국내결연 아동인 씨름신동 ‘웬디’가 출연했습니다. 웬디와 홀트아동복지회는 2018년 처음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결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웬디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육 꿈나무 김웬디

웬디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추천으로 씨름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정도로 웬디에게는 정말 생소한 운동 종목이었지만, 씨름 시작 두 달 만에 전국 어린이 씨름왕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씨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웬디의 이야기는 최근 인기 TV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방송되며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었는데요. 웬디는 “평소 즐겨 보던 프로그램에 나가서 좋았다”며 “방송이 나간 후에 가끔 저를 알아보시고 방송 잘 봤다고, 또 응원한다고 인사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고, 정말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출연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현재 웬디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평일에는 씨름훈련을, 주말에는 축구수업을 들으며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체급유지를 위해 체중관리를 해야 하는 게 힘이 들지만 매일 훈련하는 건 정말 재미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 하나님의 은총 기쁨 부음 받은 자

‘웬디’는 프랑스어로 ‘oint de dieu’, ‘하나님의 은총 기쁨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웬디의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웬디의 어머니는 웬디를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집에서 동생들과도 잘 놀아주는 착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웬디가 처음 씨름을 시작했을 때 반대했어요. 웬디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웬디가 운동을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웬디는 자신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님 덕분에 운동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사랑과 함께 앞으로 더욱 멋지게 성장할 저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피터팬’ 속 웬디는 피터팬과의 모험을 마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최고의 모험일지도 몰라!”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체육꿈나무 웬디를 홀트아동복지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웬디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비·주거비·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지속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연후원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체육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런런 챌린지’ 통해 체육 지도자를 꿈꾸는 민규 씨 이야기

자립준비청년 취·창업지원사업 ‘런런 챌린지’는 K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만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문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개월의 지원기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한 직업관과 자아개념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런런 챌린지’를 통해 체육 지도자를 꿈꾸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민규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학생들에게 축구 지도를 하는 모습

## 꿈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좌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 시설에서 매일 울며 지내던 저는 시설의 도움으로 체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던 축구에 빠져 축구팀에 입단하고 합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연습하는 친구들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샘이 났고, 저의 모습과 비교할수록 자꾸만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어른도, 경제적 여유도 없다는 사실은 제가 친구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한껏 낮아진 채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 꿈과 자립을 향한 도전

운동을 좋아했지만 결국 꿈을 포기한 채,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찾아보던 중 전문 기술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런런 챌린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8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인생의 역전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간절함과 20여 년간 열심히 살아온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일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홀트아동복지회 덕분에 스포츠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 동안 체육 분야 전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고 한국줄넘기지도자협회 지도자 자격과 심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3가지 자격증만 더 따면 전국 어디서든 체육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불러주시면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 믿음, 자신감, 성취감

이후 런런 챌린지를 통해 취득한 풋살 심판 자격증으로 진주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경기 심판도 보는 등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험과 경력이 쌓일 때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뿌듯함과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경험하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런런 챌린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받았습니다. 가족처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믿음 덕분에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이자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의 저는 1만 2,000원의 시급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지만, 이제는 시간당 25만 원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축구, 줄넘기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의 다양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더 큰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을 돕고,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동료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공모패 사진



▲ 줄넘기 심판·지도자 자격증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자립준비청년 민규 씨. 이처럼 자립준비청년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주세요.

# 우리를 위한 발걸음을 응원하는 'With You!'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위드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사생대회



홀트아동복지회와 세방이의순재단이 함께 후원하는 '위드유 커뮤니티'는 자립준비청년의 동아리 활동 및 자기개발 활동 등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위드유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시설아동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담은 굿즈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드유 커뮤니티 동아리 중 '등대지기' 조는 굿즈 펀딩을 통한 수익금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구급키트를 제작하고 배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아동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담은 굿즈(그립톡)를 만들기 기획하여 더 뜻깊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을 위해 등대지기 조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선물도 준비하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사생대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나의 꿈', '여름방학에 가고 싶은 곳' 등의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서로 장난치던 아이들은 어느새 진지한 모습이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습니다. '별을 봤던 순간',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 '축구를 하며 맘껏 뛰어노는 모습' 등 저마다 그리고 싶은 주제를 정해 그리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멋진 20장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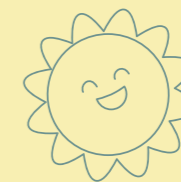
## 우리를 위한 한 걸음이 큰 걸음이 되도록

특히 이날은 홀트아동복지회의 명예 멘토이자 웹툰작가인 '공씨'님이 함께해주어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공씨 작가님은 "이날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모습이 매우 찬란하고 귀해 보였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등대지기 조는 "우리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의 1차 목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구급키트 제공이었지만, 최종 목표는 시설아동과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일반 시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발걸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글 아동복지팀 서혜림



▲ 사생대회 그림 완성작



▲ 사생대회 단체사진

# 엄마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MOM'S FESTA 플리마켓



한부모에 의한, 한부모를 위한, 한부모의 풍성한 축제

지난 10월 14일 롯데몰 김포공항점 썬큰광장에서 한부모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맘스 페스타(MOM'S FESTA)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열린 플리마켓은 올해 7회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한부모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수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로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셀러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 시장의 트렌드와 수요자의 기호 파악은 물론 소득 창출과 판로 개척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해주신 롯데지주, 롯데GRS, 롯데백화점의 후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2016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의 한부모를 돕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온 롯데 GRS에서는 오늘도 26명의 자원봉사들이 한부모 셀러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한부모 셀러들에게 보람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 롯데GRS 경영지원부문 김치만 부문장



## 한부모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토요일 아침, 본격적인 플리마켓 운영에 앞서 내빈과 셀러들이 참석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이자 홀트아동복지회의 명예 멘토로 활동하는 강도현 MC가 한껏 분위기를 띄우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과 롯데GRS 경영지원부문 김치만 부문장,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조석민 점장을 비롯해 플리마켓의 주인공인 35명의 셀러들이 함께했습니다. 롯데GRS 김치만 부문장이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순서에 이어 개장식의 하이라이트 '앞치마 착용식'을 가졌습니다. 3명의 한부모셀러와 3명의 내빈이 단상에 올라와 서로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는 세리머니로 격려와 지지가 더해졌습니다.

우천 상황에 대비해 롯데몰 입구로 자리잡은 부스들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롯데GRS, 캐논코리아, 세븐일레븐이 팝업스토어로 참여해 사은품 증정과 무료 사진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물품 판매 후 수익금을 기부하며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 소중한 경험을 자립의 디딤돌 삼아

오후가 되면서 가족 단위로 플리마켓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

었고, 덩달아 셀러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과 아이에게 두루 인기를 끄는 곳은 액세서리와 인형을 판매하는 부스. 딸에게 반지를 선물한 한 어머니는 "우연히 방문했는데 좋은 제품이 많아서 구입했다"며 "액세서리 외에도 인형 등 다른 수공예 제품들이 모두 독특해서 관심이 간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아기 수면조끼를 구입한 또 다른 고객은 "작은 인형이 달려 있는 조끼가 너무 깜찍해서 28개월 된 아들을 위해 샀는데, 플리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모두 좋은 것 같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아울러 "한부모들이 이렇게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 자체가 무척 좋아 보인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포토 프린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 푸짐한 경품이 지원되는 이벤트 부스에는 하루 종일 긴 줄이 이어졌고, 행사 후반부에는 선 홍보대사가 행사장을 찾아 관객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부모의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정규클래스', '강사양성클래스'와 '똑똑한 엄마'를 통해 기술교육을 습득한 한부모들은 플리마켓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아이템을 구상해 손수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한 값진 경험은 자립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맘스 페스타 플리마켓이 한부모 셀러가 자립할 수 있는 용기와 꿈을 키운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 롯데GRS 한부모 셀러들의 판매활동 지원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는 2016년부터 미혼한부모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롯데GRS 임직원들은 이날도 자원봉사자로서 한부모 셀러 부스에서 상품 판매를 도왔으며, 자사 브랜드의 온라인 전용 굿즈 판매와 '롯데잇츠' 앱을 활용한 '꽂 없는 추억의 뽑기' 선착순 이벤트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고객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 캐논코리아 무료 사진촬영과 인화 서비스 지원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는 2019년부터 홀트 아동복지회와 한부모가정에 가족사진 촬영과 앨범을 지원하는 사업을 후원하며 '맘스 페스타 플라마켓'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캐논코리아 직원들은 자원봉사로 함께하며 플라마켓을 찾은 시민들에게 무료 사진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MOM'S FESTA 플라마켓



### 세븐일레븐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수익금 기부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고객의 행복에 기여하는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봉사단은 이번 플라마켓에 자사 판매 제품인 미용티슈와 보조배터리, 타올 등의 품목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플라마켓에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되었습니다.



### 선 홍보대사의 토크 콘서트 행복한 시간, 감사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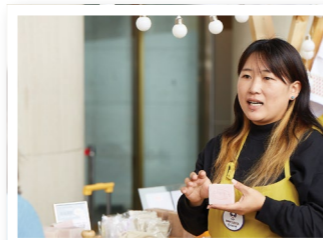
나눔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선 홍보대사가 맘스 페스타 플라마켓을 찾아 나눔과 행복,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결혼을 계기로 하루에 1만 원씩 1년간 모아 기부하게 된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이기도 한 그는 막내가 돌이 됐을 때 가장 뜻깊은 돌잔치를 선물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아이가 자라 "나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어요"라고 말하길 바란다는 대목에서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지금'은 영어로 present인데, 또 다른 의미로 '선물'입니다. 지금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순간 지금을 선물로 받고 있는 셈입니다."



### MOM'S FESTA 플라마켓 INTERVIEW

#### 한부모 셀러들의 소감 한마디



저는 제주에서 왔고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올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천연 오일이 들어간 설거지 비누예요.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아서 천연 수세미와 천연 화장품 제작도 배우고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한부모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세요.

- 삼십육점오일도 박란희 대표

3년째 참여 중입니다.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 올해는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조향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셔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디퓨저, 룸스프레이, 섬유스프레이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홀트에서 진행한 마케팅과 브랜딩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한부모들에 대한 꾸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발롱스튜디오 최민경 대표



올 상반기에 한부모 자립을 도와주는 교육 지원사업 '똑똑한 엄마'를 통해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배우며 플라마켓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격증 취득부터 판매까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특히 교육과 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소평몰과 플라마켓 운영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 라미엠 강미라 대표

#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家) 가족”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일기 공모전 후일담

우리 모두는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불편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한 쌍의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습은 달라도 가족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는 모두 하나의 가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일기 공모전**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날씨 ☀️☁️☔️☁️☔️☁️  
 제목: 우리만의 마라톤

오늘	운동회	계주	에	서	엄	마	와
뛰었다.	완벽한	한	팀	이	였다.		
문득	인생	이라	는	마	라	톤	에
엄마	하나	면	중	분	하	겠	는
각	이	들	었다.	가	족	의	형
태	에	는					
정	답	이	없	으	니	까	.
라	톤	을	뛰	면	되	다.	힘
							차
							게!

우리가(家) 가족

## 국민심사 거쳐 총 12작품 선정

지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그림일기 공모전 ‘우리가(家) 가족’을 실시했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공모전은 올해로 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림일기’ 양식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성별, 연령의 제한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확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접수부터 국민심사까지, 3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대상에 이민주 학생의 「우리만의 마라톤」, 최우수상에 엄상녕 씨의 「우리 가족과 닮은 고양이 가족!」과 최명아 학생의 「한부모가족의 의미」 외에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까지 최종 수상작 12작품이 추려져 지난 8월 22일 홀트아동복지회 공감홀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상 「우리만의 마라톤」 수상작

## 가족, 연인, 친구와 온 마음으로 함께한 시상식

홀트아동복지회 내빈을 비롯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상자들이 시상식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학생 수상자들은 수업을, 성인 수상자들은 각자의 일과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발걸음해주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이민주 학생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최명아 학생은 각각 울산과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입시와 학업으로 바쁜 나날 중에도 공모전 참여의 귀한 마음을 나누고자 아침부터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외 제주도, 광주, 경남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상자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상장을 받은 사진과 함께 수상소감을 전해주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수상의 기쁨을 나눠주었습니다.

##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가족”

시상식에 참여한 수상자들은 시상부터 작품 감상, 소감 발표까지 공모전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우수상 「우리 엄마는 달팽이」 수상자

“어릴 적 가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지만,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다들 사연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작품은 한부모가정의 부모를 달팽이로 표현해보았는데요. 자음동체인 달팽이가 암·누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한 명이어도 온전한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죠.”



## 우수상 「스파게티를 먹다가 떠오른 생각」 수상자

“전희 팀은 키즈카페에서 미트볼을 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두 명의 부모가 온전히 있어야 아이가 잘 자라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가좌 두 짝이 있어야 밥을 편히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포크 하나만 있어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데, 부모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세 번의 내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우리만의 마라톤」 수상자 이민주 학생은 입시를 준비하며 의미 있는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수상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 대상 「우리만의 마라톤」 수상자

“인생을 달리기라고 하잖아요. 주인공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인생이라는 달리에 비유해보았어요. 서로 화합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면 같이 뛰는 대성이 몇 명이든 상관없다는 것과 팀, 즉 가족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졌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도 각자 모습은 달라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구성원의 숫자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공모전에 귀한 작품을 보내주시고 심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부모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멈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휠체어농구는 희망입니다”

장애인 지원 캠페인 REPLAY와 특별 후원자 길몽 작가 인터뷰



## 휠체어농구,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인생의 전환점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265만 명 중 후천적 질환과 사고로 장애를 겪는 비율이 80%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절망에 처한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REPLAY’ 캠페인으로 희망을 전달하려 합니다.

“스물세살 때 집에 돌아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찾아온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죠. 그런 제게 휠체어농구는 단순한 운동일 수 없어요.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놀라운 전환점이지요.”

-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주장, 최요한 선수



선수들은 하나같이 “휠체어농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 이후,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당시 재활 치료로 알게 된 휠체어농구는 제 일상의 버팀목입니다.”

-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황정희 선수



“소아마비를 앓고 어릴 적부터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휠체어를 타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휠체어농구는 내 힘으로 뛰면서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입니다.”

-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강재준 선수



## 휠체어농구단이 멈추게 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현재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의 선수는 단 5명.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선수들은 열악한 훈련 환경과 부족한 지원, 신입 선수의 부재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5명의 선수 중 단 1명이라도 농구단을 떠난다면, 휠체어농구단의 열정과 희망은 여기서 멈추어야만 합니다.

## 농구단과 장애인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리플레이란 스포츠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레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 리플레이는 평생 잊지 못할 후원 프로젝트

사진작가 길몽님께서 자신의 생일을 기념한 개인전을 통해 리플레이 캠페인의 특별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후원자 길몽님은 지난 7월 두 번째 개인전 <환원>을 개최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진 전시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Q. 전시회 <환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전시는 ‘사진이 예술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입니다. 사진의 한계를 ‘복제’로 규정하고, 그것을 해소하려 ‘무한 복제’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에 제 작품들은 모두 패턴을 띠고 있으며 복제의 한계를 복제로 해결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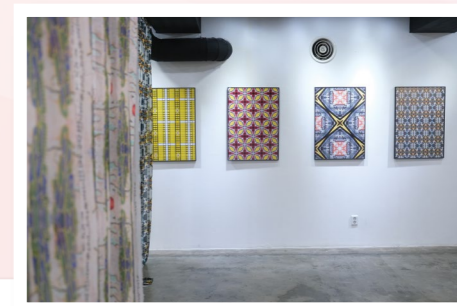
Q. 어떤 계기로 리플레이 캠페인에 후원하게 되셨나요?

A. 저는 다리 골절상으로 목발을 짚게 되면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고, ‘휠체어농구단’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지원하는 리플레이 캠페인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다음과 같은 희망이 되어줍니다.

- 노후된 경기용 휠체어 수리비, 필요 용품 및 운동기구 지원
- 장애로 인한 진료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의료용품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직업교육비 지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증정해 드립니다. 휠체어농구단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Q. 생일에 개인전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념일을 잘 챙기는 편은 아니지만, 생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개인전을 생일에 열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생일’과 ‘개인전’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하선물을 화분이나 꽃, 기프티콘 대신 ‘현금’으로 받아 소중한 지인 33명과 함께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큰 금액을 보내주어 나눔의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해준 친구들도 평생 잊지 못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A. 휠체어농구단의 경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휠체어농구는 장애인들에게 큰 응원이 될 뿐만 아니라, 후원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실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캠페인 리플레이를 통해 휠체어농구단이 ‘Replay’할 수 있도록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받은 소중한 후원금은 장애로 인한 진료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의료용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사진작가 길몽 님을 비롯한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황태우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아프리카 어린이날 기념 탄자니아 아동권리 교육



지난 6월 16일 탄자니아 홀트 해외사업장에서는 아프리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교 두 곳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인식 향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800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교사 및 사회 복지사, 교육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어린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에요

학생들의 아동권리 옹호 행진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음 세대의 희망임을 강조하며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춤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옹호 교육에서 학생들은 아동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부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며 몇몇 학생들이 직접 나와 각 신체 부위를 방어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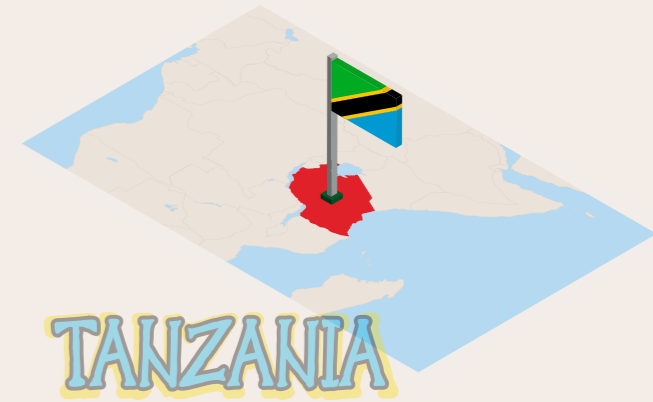
▲ 교육받은 후 손을 올려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아동들

빈곤과 학대로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들에게 아동권리 옹호와 관련된 활동 책자를 나누어주며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아동권리를 알리고 가르쳤습니다.

“케코 지역은 빈곤과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계약직으로 긴 시간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빈곤한 환경으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다른 형제 등 대가족이 한방에서 같이 생활하곤 하는데, 사실 어린 여자아이가 삼촌과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는 사회적 위험에 놓여 있어요.”

- 케코 초등학교 아동 인터뷰



▲ 발표에 참여하는 아동



▲ 활동 책자를 지원받은 아동들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 TV 채널과 신문에도 실리며 지역 사회에도 아동권리 인식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해외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후원자님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글 아동복지팀 지미경

#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날'  
후원사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의 사회공헌 이야기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꿈날')은 홀로 삶을 시작하게 될 시설청소년이 보호시설을 퇴소하기 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과 함께 210여 명의 시설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설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담당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2018



**Q1. 오랫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대백화점그룹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71년 금강개발산업으로 출발하여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을 목표로 주력 사업인 백화점과 홈쇼핑 등 유통사업뿐 아니라 패션, 뷰티, 리빙, 식품, 바이오·헬스 등 사업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종합생활문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물론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 HCN, 현대드림투어, 한섬, 현대리바트 등 현대백화점그룹 모든 계열사의 사회공헌활동은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2023



**Q2. 현대백화점그룹에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가요?**

**A.** 2006년 설립된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사회공헌 분야는 아동복지이며, 미래세대에 희망을 전하는 '파랑새'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영업이익 1% 이상을 기부한다'는 내부 기부금 정책에 따라 2023년도에는 연간 150억 원 정도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결연후원제도부터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지원, 순직·공상 제복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넘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백화점그룹은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학습지원사업, 차세대 문화/체육 분야 유망주 재능 육성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파랑새, 꿈날 자립지원훈련워크숍'에서 즐거워하는 파랑새 멘토와 멘티의 모습

**Q3. 현대백화점그룹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인연이 200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 영역 중 시설청소년에게 더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A.** 사회공헌 영역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퇴소를 준비하는 청소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홀로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2018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홀트아동복지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대백화점그룹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4. '파랑새, 꿈날'을 통해 지원받고, 자립을 앞둔 친구들을 위해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A.**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파랑새, 꿈날'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훗날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기쁜 어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사랑을 행동으로’의 ‘찐’ 모범 사례 탑리더스 권익도·김현주 부부 위원



누적기부 1억 1천만 원 달성, 감사패 전달 소식

지난 9월 13일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탑리더스 1대 회장을 역임한 권익도 위원과 김현주 위원의 누적기부 금액 1억 1천만 원 달성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였는데요. 두 부부 위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국내·외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과 후원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실천하며 홀트아동복지회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해주었습니다.



▲ 2010년 탑리더스 창립총회

##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권익도·김현주 위원과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은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의 ‘입양’을 상담하기 위해 합정동 사육을 방문했던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입양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당시 후원 업무 실무자였던 신미숙 회장님과의 상담 후 ‘내가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권익도 위원은 16년 전 현재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하며 후원을 시작한 계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신미숙 회장님은 30대의 제가 아이들을 돕고 싶은 열정 하나로 입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방법의 하나로 후원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입양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후원을 해보고 아이들을 돕는 마음으로 봉사도 해보라고 하셨죠.”

## 누군가를 위한 기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부

이후 권익도·김현주 위원은 일시보호소 아기 돌봄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성한 직장인 밴드를 통해 홀트일산복지타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바비큐 파티를 제공하는 등 봉사와 기부를 오랜 기간 실천했습니다.

권익도·김현주 위원은 경제적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정기후원금을 늘렸고, 2010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인 탑리더스를 발족하며 1대 회장에 위촉되었습니다. 권익도·김현주 위원은 보다 많은 후원자의 참여를 이끌어 후원자 개발 및 홀트아동복지회 첫 해외사업의 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탑리더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5번째 탑리더스가 위촉되어 그 의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익도·김현주 위원 역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일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권익도 위원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공부를 곧잘 했던 권익도 위원은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해군대위로 근무하였고, 제대 후 외국계 기업에서 임원까지 승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신미숙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권익도·김현주 위원

바쁘게 사는 중에도 가난과 가정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권익도 위원님은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주었습니다. 현재 중앙배움센터 ‘비상’ 대표로 있는 권익도 위원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랑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하여 참된 행복을 경험해보기를

권익도 위원은 힘들었던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60~7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아동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도 많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반에 시설아동들, 즉 고아가 정말 많았어요.” 이어 “세상은 바뀌었지만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전히 많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홀트 부부의 홀트아동복지회 설립 취지가 너무 좋았다”는 권익도 위원은 “창립 68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의 행복’을 위한 사회복지를 정말 잘 실천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이기도 하다”는 말로 홀트아동복지회를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실천하여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졌으면 한다”는 권면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신 권익도·김현주 위원님 홀트아동복지회의 든든한 가족으로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물질적으로 가장 궁핍할 때 나눔을 결심합니다"

아티스트 자이언제이(ZionJ, 정시은) 위원의 탐리더스 위촉 기념 인터뷰

지난 8월 22일 아티스트 자이언제이 위원의 탐리더스 65호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자이언제이 위원은 대학 졸업 후 개인 아티스트 활동과 함께 아트 스튜디오 진화(Art Studio ZinHw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과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은 패키지나 제품을 출시하고 스토리를 창출하는 아티스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로 시작된 멘토 활동이 자신에게는 “꿈을 이루는 일과 같았다”며 감동 어린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꿈

자이언제이 위원의 꿈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냈던 자이언제이 위원은 ‘매 순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와 인내로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자이언제이 위원의 아름다운 꿈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요.”

시설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나누는 자리에서 자이언제이 위원의 답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자이언제이 위원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6기 명예멘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토크쇼에서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들려주는 장면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여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심으로 답변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보며 홀트아동복지회의 진정성 있는 사업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후원자에서 시설청소년 명예멘토가 되기까지

2017년 자이언제이 위원의 디자인 에이전시 ZINHWA의 홀트패밀리샵 후원으로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지난 2022년 자신의 딸 ‘에덴’의 첫돌 기념 기부와 2023년 한부모가정의 후원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한편, 자이언제이 위원은 탐리더스로 위촉되기에 앞서 2023년 상반기에도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시설청소년의 1대1 진로 멘토링과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6기 명예멘토로 위촉되었습니다. 자이언제이 위원은



## Q. 탐리더스 위촉식 현장이 어떠셨나요?

A. 홀트아동복지회의 많은 후원자 중 65번째 탐리더스 위원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했던 지난 7년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탐리더스로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후원과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 Q.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A. 누군가가 제 그림을 감상하며 기쁨, 공감, 위로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술가는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잘 그렸다’는 평가도 좋지만 그림의 스토리에 집중하여 그 이야기에서 따뜻한 감정과 에너지를 얻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 Q. 자이언제이 위원님과 같은 분야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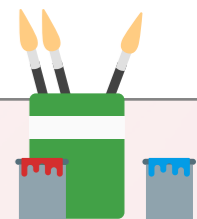
A.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기보다 ‘내 삶에 주어진 스토리와 감정,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준비하며 ‘성실’과 ‘용기’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표현해 보세요.



## Q. 자이언제이 위원님에게 나눔이란?

A. 제가 나눔을 시작한 것은 제가 가장 가난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나눔을 결심할 때는 물질적으로 가장 궁핍함을 느낄 때입니다. 가장 나누기 어려울 때 나눔을 실천하며 저에게 나눔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것을 흐르게 돕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하는 많은 후원자 및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나눔과 사랑이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 “이름을 새기는 일이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일이 되도록”

재능후원자 ‘(주)디글’ 김두연 대표의 나눔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는 다양한 재능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로 나눔을 공유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재능후원자 (주)디글 김두연 대표의 나눔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11년 전 고운뜰 한부모들과 맺은 인연

서예를 전공한 김두연 대표는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글씨 쓰기와 도장 제작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도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외국인과 아이들을 떠올렸고 그들에게 수제 도장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눔에 뜻이 있던 김두연 대표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1년 제1회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디글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성장하여 사회적기업이 아닌 어엿한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며 강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두연 대표와 홀트아동복지회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2012년 홀트아동복지회 산하기관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강의를 통해서였습니다. 미혼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제 도장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현재는 입양대기아동과 성인 입양인들에게 한글 이름을 새긴 수제 도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이름

김두연 대표의 이름은 ‘막을 두’에 ‘어여뵤 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뵤를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자신의 이름에는 아들을 바라셨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입양인을 대상으로 수제 도장 강의를 진행한 김두연 대표는 팔이 불편한 입양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모습을 보고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건가?’ 하고 이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예뵤를 막는다’가 아닌 ‘모든 걸 다 막아서 이제 예뵤질 일만 남았다’라고 달리 해석하며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연 대표는 도장 제작뿐 아니라 개성이 담긴 손 글씨 캘리그래피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외국인 대상 캘리그래피 체험행사에서 ‘꽃보다 고운 제임스’라는 문구를 써서 걸어놨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제임스가 행사 부스에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네 이름이 정말 제임스야? 이거 네 거야”라고 말하자, 제임스는 거기에 쓰인 문구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고민 끝에 “너는 꽃, 그리고 모든 자연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야”라고 설명해주었던 제임스가 정말 행복해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주는 영향력을 느낀 김두연 대표는 종종 캘리그래피 행사에서 입양인들이 한국어 이름의 의미를 물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뜻’으로 해석해주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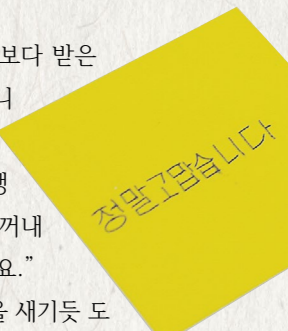
## “나눔은 ‘1+1=2’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김두연 대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사 문을 닫을까 고려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22년 6월 마지막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도장을 만들 때, 이름을 수십 번 확인하며 작품을 완성해왔던 것처럼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은 도장을 제작해 입양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뜻밖에도 입양인들 역시 김두연 대표를 위해 감사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고, 김두연 대표는 그들의 보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꼭꼭 눌러쓴 글씨 ‘김두연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를 본 김두연 대표는 진심이 느껴지는 그 글씨를 통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면서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나눔은 ‘1+1=2’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말과 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5년, 10년이 지나서 꺼내 보아도 힘을 얻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도장에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이름을 새기듯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주)디글의 소중한 활동이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 담아 나눔을 실천해요”

팬덤 기부의 시작점 아이돌차트와 팬덤 기부문화 살펴보기



★진 - 빅히트뮤직



★영탁 - 탑스튜디오



★임영웅 - 뉴에라프로젝트  
물고기컴퍼니



★송가인 - 포켓돌스튜디오

아이돌차트는 스타의 음원과 음반, 방송, SNS, 포털 등을 빅 데이터로 분석해 가수나 그룹의 성적과 화제성을 종합하고 순위를 매겨 집계하는 순위 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음반과 가수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소식통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돌차트에는 메인차트인 ‘아차랭킹’을 비롯해 팬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평점랭킹’, 가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을 볼 수 있는 ‘아차리포트’, 다양한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POLL’ 외에 ‘신곡 소식’,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부도 하고 스타도 응원하는 일석이조의 나눔

아이돌차트에서는 스타의 팬들이 특정 상품을 결제할 경우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TP포인트로 돌려주어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TP기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TP포인트가 일정 목표치에 도달하면, 매월 10일 TP포인트와 같은 금액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됩니다. 또 매년 1월 10일에는 전년도에 전해지지 않은 모든 후원금이 일괄 전달됩니다.

이 ‘TP기부’를 통해 팬들은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스타도 응원하는 일석이조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팬덤 기부를 실천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들

## 아이돌★차트

### 사회공헌협약 통한 선한 영향력 실천에 동참

2018년 12월, 강다니엘과 방탄소년단 지민의 이름으로 첫 번째 기부가 진행된 것을 계기로 다음해 1월 아이돌차트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아동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첫 기부가 시작된 2018년 12월 이후 2021년까지 목표금액 달성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타는 강다니엘·김호중·박지훈·뷔(방탄소년단)·송가인·슈가(방탄소년단)·영탁·은가은·이찬원·임영웅·정국(방탄소년단)·제이홉(방탄소년단)·지민(방탄소년단)·진(방탄소년단)·하성운·홍자·황현민(뉴이스트)(가나다순) 등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스타의 팬들도 아이돌차트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 박지현·박창근·양지은·이병찬·이솔로몬·전유진(가나다순) 등의 팬들이 훈훈한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가수 영탁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8개월간 아이돌차트 기부스타 1위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 팬덤 기부문화의 긍정적 확산 이어져

‘팬덤 기부’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기 위해 벌이는 기부활동으로, 스타의 선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팬들도 건강한 기부문화에 참여한다는 뿌듯함이 더해져 최근 들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스타의 생일이나 데뷔일, 신곡 발매일 등 특정한 날짜에 맞춰 후원을 진행하거나 스타의 특별한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팬덤 기부문화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각각 12월 4일과 26일 생일을 맞이하는 방탄소년단 진과 송가인을 위해 팬들이 홀트아동복지회의 기부에 참여해 더욱 풍성한 팬덤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에는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임영웅의 ‘2021년 아이돌차트 연말결산 평점랭킹 1위’와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38주 연속 1위’를 기념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돌차트 외에도 스타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스타의 팬카페나 팬클럽 회원들이 스타의 이름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을 전해주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팬덤 기부 후원에 참여한 스타의 이름은 YB(록밴드)·김민주(성우)·김호중·등륜(중국배우)·박지훈(워너원)·보이비(리듬파워)·뷔(BTS)·은혁(슈퍼주니어)·이규형·이민호·임영웅·정해인·조광일·종형(DKZ)·진(BTS)·진해성·하석진(가나다순) 등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이돌차트와 팬덤 기부를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으로 생계, 의료, 주거, 심리,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

캐논코리아, 사회공헌 협약 체결



6월 29일 홀트아동복지회와 캐논코리아가 한부모가정의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논코리아는 2019년부터 'mom(맘)편한 가족앨범'을 통해 242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해피홀트데이, 탐리더스 '영웅시대 나눔의 방' 참여



9월 9일 후원자 소모임 해피홀트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해피홀트데이에 참여한 탐리더스 팬클럽 1호 '영웅시대 나눔의 방' 위원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임영웃 굿즈'를 만들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향한교회 아동부, 아동·청소년 위한 후원 실시



경기도 광명시의 주향한교회 아동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은 후원금을 전해 주었습니다.

서울후원회 아우회 개최



9월 6일 서울후원회 아우회가 경기도 포천시 분도마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되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서울후원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미혼한부모가정 심리·정서 지원 '가족애(愛) 너지 캠프' 실시



8월 23~24일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미혼한부모 25가정을 대상으로 미혼한부모가정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애(愛)너지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아동에게 숙박, 간식, 기념품 등을 풍성하게 지원하며 즐거운 추억과 문화체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부산지부

아이젠트리,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회공헌활동 실천



8월 17일 '안경원 프랜차이즈 기업' 아이젠트리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젠트리는 전국 아이젠트리 가맹점과 함께 가정의 달 행사 기간 중 모은 수익금의 일부를 매장 방문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대구지부

'NEW동네점빵' 홀트패밀리샵 현판 전달식



7월 1일 NEW동네점빵 18개 지점이 참여한 가운데 홀트패밀리샵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NEW동네점빵 최선명 대표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충청지부

양상블 피아노소리 정기연주회 기념 후원금 전달



6월 25일 제9회 정기연주회 '선물N 재즈에 반하다'를 개최한 양상블 피아노소리가 정기공연을 기념하여 충청지부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양상블 피아노소리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돌 인형' 지원



2021년부터 수성구청 지원으로 우울감이 있는 독거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시 기능이 탑재된 인형을 지원하는 '효돌 인형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효돌 인형은 어르신의 식사, 약 복용, 운동 시간을 알려줄 뿐 아니라 취미활동까지 함께해줘 참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초복·중복 맞이 삼계죽 행사 실시



초복과 중복을 맞아 복지관 내 급식서비스 이용자와 노인맞춤돌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계죽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를 모두 건강하고 여름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삼계죽을 1,081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여름용품 지원 '하남사랑나눔'



하남시와 함께 여름나기 지원사업 '하남사랑나눔'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길어진 장마로 습도 조절이 잘안되던 93가구에 제습기를 지원하였고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개별 상담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가족관계 증진 위한 양육코칭, '부자(父子)의 탄생'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 '부자의 탄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 아동인권교육을 통해 가정 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돕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영아원

신나는 물놀이, '더위야 물러가라!'



8월 중순 전주영아원 마당에 물놀이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족구와 독감, 코로나 19 등으로 바깥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아이들은 물놀이장 개장으로 폭염도 날려버릴 만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들

한부모가족 일본 해외연수 실시

지난 6월, 그동안 꿈꿔왔던 해외문화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한부모들은 일본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름들

가족뮤지컬 관람 실시



7월 19일, 가족뮤지컬 「브레드 이발소」 관람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신나는 음악, 흥미진진한 뮤지컬을 관람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클로버

천연화장품 만들기 실시



8월에 한부모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이 재실시되었습니다. 질 좋은 천연재료와 개인의 취향 및 피부 타입에 맞는 레시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클로버

119시민체험센터 소방안전교육 참여



'119시민체험센터'를 찾아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및 폭발 등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 유형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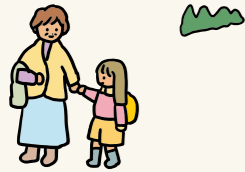


## LOVE IN ACTION

#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 지역 사회 등 가정과 아동을 지원합니다.



### 해외후원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지원, 가정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돕습니다.



### 결연후원

국내·해외아동결연을 통해 아동의 생계 및 주거, 교육발달, 문화정서, 건강의료 등 결연아동의 맞춤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고액후원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후원자 모임입니다.



### 교회후원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기업후원

사회공헌 협력사업, 중소기업인 나눔캠페인(홀트패밀리샵)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후원

생일, 첫돌, 결혼기념일, 팬덤 후원 등 후원자님의 특별한 날을 나눔으로 기념하는 후원입니다.



ZERO PER ZERO

- 후원 상담 · 문의 TEL : 02-331-7073~6 / E-mail : sponsor@holt.or.kr
- 후원계좌 KB국민은행 : 479037-01-000461 (사)홀트아동복지회

# 시선을 뒤집으면 엄마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 MOM is WOW

미혼한부모 후원 캠페인



▶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카메라로 스캔하여  
금융바우처 받기!

## 2023 IBK 금융바우처

# 통장개설 시 금융바우처 최대2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금융바우처는 홀트아동복지회와 IBK기업은행이  
영유아 · 청소년 · 청년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함께 돕는 캠페인입니다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바우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7세 이하)

### 청소년 바우처

2005년~2016년  
출생한 청소년(8세~19세)

### 청년 바우처

1994년~2004년  
출생한 청년(20세~30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4136호 (2023.09.08) 게시기한 :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6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